

독서 활동지

혐오, 나는 네가 싫어

한세리 외

천개의 바람

2024



대상 중고등학생

주제어 #사회 #혐오 #삶 #청소년

작성자 권유정, 서울 자운고등학교 사서교사

활동 계획

단계	활동 내용	활동 일자
읽기 전	'혐오' 얼마나 알고 있나요?	
읽는 중	독서 노트 1장	
	독서 노트 2장	
	독서 노트 3장	
읽은 후	『혐오, 나는 네가 싫어』 워드 클라우드 만들기	
	사회 속 혐오, 찾아보기	
	혐오를 넘어서는 방법에 대하여	
	『혐오, 나는 네가 싫어』, 함께 읽자 친구야!	

혐오, 얼마나 알고 있나요?

『혐오, 나는 네가 싫어』는 '혐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책을 읽기 전, 나는 평소에 '혐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마인드 맵으로 정리해 봅시다.



사회 속 혐오, 찾아보기

1. 우리는 책을 통해 혐오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자기 혐오, 능력 혐오, 장애인 혐오, 젠더 혐오, 나이 혐오, 인종 혐오 등 여러 혐오들이 실제로 사회에서 어떤 양상을 띄고 있는지 신문 기사를 통해 살펴 봅시다.

tip. 최신성과 정확성이 높은 기사 선정을 위해 <빅카인즈>를 활용하여 신문 기사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내가 찾아본 '혐오'	
기사 제목	
신문사, 작성자 이름	
발행 날짜	
기사 내용 요약하기	
사회 속의 혐오를 존중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 생각하기	

사회 속 혐오, 찾아보기

심화 활동 : 읽기자료 ①

[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 "혐오·비하발언NO"... 유해콘텐츠·댓글삭제 선제적 조치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공간에서 난무하는 혐오·비하발언을 규제하기 위해 기업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다. 자체 규정을 강화해 콘텐츠를 모니터링하고 검열·삭제하는 등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 정책 강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실제 기업들의 제재 조치로 인해 온라인상에서 다수의 폭력 콘텐츠와 댓글 등이 삭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1분기 기준 유튜브의 자사 가이드라인 위반에 따른 삭제 채널 수는 1579만 9880건이다. 같은 기간 삭제된 총 동영상 개수는 829만 5304개, 댓글 건수 또한 14억 4382만 1162건에 달한다. 유튜브의 자체 정화 기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는 현재 증오·폭력과 같은 유해 및 위험 콘텐츠 등에 대해 자사의 플랫폼 정책을 위반하는 콘텐츠는 삭제하고 이와 관련된 알림 이메일을 크리에이터에게 발송하고 있다. 90일 이내에 경고를 3번 받을 경우 해당 유튜브 채널은 폐쇄된다. 과도한 노출이나 성적인 콘텐츠, 저속한 언어 등에 대해서도 유튜브는 동일한 내용의 규제를 하고 있다.

인스타그램·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도 자체 규정을 통해 유해 콘텐츠 삭제 또는 계정 비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1020세대의 이용률이 높은 메타 플랫폼의 경우 사용자 상태에 상관없이 18세 미만의 모든 이용자에게 더 강력한 보호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혐오 발언과 괴롭힘, 따돌림 같은 온라인 폭력 등에 대한 커뮤니티 규정 위반 시 즉각 콘텐츠 삭제 조치가 내려지거나 계정이 비활성화된다. 필요할 경우 메타 측은 사법당국과 공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메타는 현재 전 세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커뮤니티 규정을 제정하고 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을 유해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팔로우하지 않거나 접점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다이렉트메시지(DM)를 수신할 수 없도록 기본 설정해 청소년들을 원치 않는 연락으로부터 보호한다. 또 청소년이 인스타그램 내 설정을 변경하려면 관리 감독 기능을 통해 부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메타에 따르면 이 같은 커뮤니티 규정 시행 결과, 올해 1분기 페이스북에서 790만개의 온라인 폭력 콘텐츠에 조치를 취했고, 인스타그램에서는 1000만개 이상의 콘텐츠에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이 중 페이스북 콘텐츠 86%와 인스타그램 콘텐츠 96%는 이용자가 신고하기 전, 사전에 감지해 삭제됐다. 혐오 발언이 포함된 콘텐츠는 페이스북에서 740만개, 인스타그램에서 860만개가 삭제됐으며 사전 감지율은 각각 페이스북 95%와 인스타그램 98%에 달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댓글 등 유해 콘텐츠를 삭제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국내 양대 인터넷 포털인 카카오와 네이버는 유해 콘텐츠를 차단하는 AI 기술 고도화에 앞장서고 있다.

먼저 카카오는 AI 기술을 활용한 '세이프봇' 기능을 2020년에 도입했다. 세이프봇은 불쾌감을 주는 욕설과 비속어 등을 선별적으로 가리는 것이 특징이다. 카카오는 지난해 6월 댓글을 개편하면서 세이프봇 기능을 강화했으며 그간 선택 옵션으로 제공했던 세이프봇을 모든 댓글에 일괄 적용했다. 카카오는 이 밖에도 '댓글 운영정책 현황'을 통해 △24시간 댓글 신고센터 운영 △댓글 작성 어뷰징 방지 시스템 적용 △불법·음란 등 유해 댓글 자동 필터 도입 △댓글 덮어두기, 이용자 댓글 활동 숨기기, 접기 등 이용자 보호 기능 도입 △이용자 닉네임 신고 및 제재 강화에 나서고 있다.

네이버의 경우 2019년 업계 최초로 적용된 AI 기반의 악성 댓글 탐지 도구인 'AI클린봇'의 탐지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 네이버는 2019년 클린봇 도입 이후, 도입 초기 24.8%에 달하던 악플 생성 비율을 지난해 16.7%까지 낮췄다. 악플 노출 비율 또한 21.9%에서 8.9%까지 대폭 줄었다. 네이버 측은 악성 댓글이 증가할 경우 별도 알림 등을 통해 댓글 OFF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신규 기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최근 공격 대상에 대한 댓글 영역에서의 특정 표현이 '모욕죄'로 인정된 만큼 각 개인의 법적 책임에 대한 문구를 추가해 사전고지 영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작성자의 댓글 이용 제한 상태를 표시하는 등 프로필 영역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시아 투데이, 박세영, 임상혁, 김채연]

Q. 유해 콘텐츠와 댓글에 대한 온라인 공간을 운영하는 기업들의 선제적 조치에 대해 찬성하나요? 혹은 반대하나요?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사회 속 혐오, 찾아보기

심화 활동 : 읽기자료 ②

“틱톡·인스타가 청소년 망쳐놔”... 각국 ‘SNS 제한법’ 불붙는다

과도한 SNS 사용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폭력적·선정적 콘텐츠에 노출되고, 맞춤형 알고리즘 등에 따른 중독 문제까지 떠오르자 세계 각국이 청소년들의 SNS 사용 제한에 나서고 있다. 미국 의무총감은 SNS가 청소년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술·담배와 마찬가지로 경고 문구 표시가 의무화돼야 한다고 밝혔고, 호주와 유럽 등에서도 청소년의 SNS 사용 금지가 공론화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일방적인 SNS 사용 제한 조치가 인종, 종교 및 성 소수자에 속하는 청소년들을 고립시켜 다양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의무총감, SNS ‘경고 문구 표시’ 제안... 각 주 청소년 SNS 사용 제한 = 미국인들의 ‘국가 주치의’로 불리는 비백 머시 미 공중보건서비스단(PHSCC) 단장 겸 의무총감은 지난달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SNS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무총감 명의의 경고 표시를 SNS 플랫폼에 노출하도록 요구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술·담배에 붙어 있는 경고 문구와 같은 문구가 SNS에도 표시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머시 의무총감은 “젊은 세대의 정신건강 위기는 현재 비상 상황이며 SNS가 주된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관련된 다양한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그는 “하루 3시간 이상 SNS를 사용하는 청소년은 불안과 우울증 증상 위험이 두 배나 높다”며 “지난해 여름 기준으로 이들 청소년 연령 그룹의 하루 평균 SNS 사용 시간은 4.8시간이었다”고 지적했다. 미국 의무총감의 권고는 시간이 지나 공중보건사에 한 획을 긋는 전환점으로 기록되는 경우가 많아 머시 총감의 기고문은 더욱 주목받았다.

머시 총감의 권고가 나온 지 사흘 만에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SNS 사용에 따른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을 차단하는 일명 ‘어린이를 위한 안전법’(SAFE for Kids Act)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틱톡 등 SNS 온라인 플랫폼 회사들이 사전 동의 없이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공유할 수 없도록 하고, 접속 기록 등을 근거로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 생성되는 중독성 피드 및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청소년들이 알고리즘 추천 피드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 등 성인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로스앤젤레스(LA) 교육위원회 역시 머시 총감의 권고가 나온 지 하루 만에 LA 통합교육구 관할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LA 교육위원회는 휴대전화 사용이 학습을 방해하고 학생들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며 사이버 괴롭힘을 야기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플로리다주는 내년부터 14세 미만 아동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기로 했으며, 유타주도 18세 미만 청소년은 SNS 이용 시 부모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호주,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 움직임... 유럽, 스마트폰 제한 법안 마련 = 청소년의 SNS 사용 금지 조치가 가장 적극적으로 논의되는 곳은 호주다. 지난 13일(현지시간) 피터 더튼 호주 자유당 대표는 16세 미만 청소년이 SNS에 접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막기 위한 연령 인증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내년 총선에서 그가 이끄는 보수 연합이 승리하면 취임 후 100일 이내에 이를 입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더튼 대표는 SNS 기업이 청소년에게 플랫폼 접속을 허용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SNS 기업에는 아이들을 수익화하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도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접속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온라인 피해를 억제하는 데 ‘좋은 방법’이라며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시간보다 운동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11세 이전의 스마트폰 사용과 15세 이전의 SNS 사용 금지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시했다. 엘리제궁의 어린이 스마트폰 사용 제한 지침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위탁받은 전문가들이 3세 미만 유아의 영상 시청과 13세 미만 어린이의 스마트폰 사용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영국은 지난 2월 모든 학교에 수업 시간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도록 권고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일방적인 SNS 금지, 청소년 사회적 소통 방해 지적도 = 일각에서는 일방적인 SNS 금지 조치가 청소년들의 사회적 활동을 억압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소수자·약자 그룹에 속하는 이들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또래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자신들과 관련된 이슈에 관해 목소리를 낼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호주 비영리 학술 매체인 ‘더 컨버세이션’은 청소년들이 SNS를 통해 △지역사회 안팎의 가족·친구들과 소통하고 △자신들의 문화뿐 아니라 다른 문화를 배우면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배우고 △인종·성차별 등 일상에서 경험하는 구조적 혐오에 대항하는 활동에 참여하며 △건강한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를 통해 유해한 문화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문화 일보, 박상훈]

사회 속 혐오, 찾아보기


Q. 읽기 자료 ②는 청소년의 SNS 사용에 대해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SNS 사용 금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정리해봅시다.

Q. 읽기 자료 ②에서 찾아볼 수 있는 청소년의 SNS 사용 규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의 의견을 정리해보세요.

Q. SNS 사용의 역기능으로는 혐오 표현의 조장과 파급이, SNS 사용의 순기능으로는 일상 속에서 겪는 구조적 혐오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SNS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혐오를 넘어서는 방법에 대하여

세계인권선언을 따라 쓰며, 모두를 존중하는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다짐해봅시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그 밖의 견해,
출신 민족 또는 사회적 신분, 재산의 많고 적음,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에 따른 그 어떤 구분도 없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혐오, 나는 네가 싫어』 함께 읽자 친구야

『혐오, 나는 네가 싫어』, 잘 읽어 보았나요? 함께 읽고 싶은 친구에게 추천하는 마음을 담아 서평을 작성해봅시다. 어떤 내용인지, 어떤 부분이 감명 깊었는지, 그리고 추천하는 이유가 잘 드러나도록 적어 보세요.